石油 輸入先 다변화 모색하는 東歐圈

올해 東歐諸國의 소련産 石油수입물량이 20~30%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소련의 (1) 국내 생산둔화에 따른 절대수출물량의 감소, (2) 對外수출전략의 전환(硬貨획득지향)으로 인한 對 西方 수출물량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

동구제국의 對蘇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는 단기적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에 따라 동유럽제국은 소련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서방산유국 특히, 中東 및 북아프리카로부터의 石油도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소련의 '89년도 原油생산실적은 607백만톤으로 전년대비 약 3% 감소하였다. 이러한 생산의 감소는 생산구조적 요인, 즉 가채매장량의 축소, 석유산업관련투자축소, 채굴여건의 악화, 사회불안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우기 금년들어 민족분규로 인한 原油生産활동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바쿠지역의 분쟁은 원유뿐만 아니라 채굴장비 생산에도 영향을 주고 향후의 원유생산 및 수출의 동향이 더욱 불투명한 상태이다.

소련은 '89년말 동유럽의 주요 수입국에 대해 공급물량의 축소를 통보하고 이를 금년초부터 실행하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는 1월 계약도입물량 50만톤에서 11만톤 감축되었다. 이로 인하여 1/4분기까지 약 35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헝가리의 장기계약에 의한 도입물량은 '90년까지 연간 648만톤이다.

체코슬로바키아와 불가리아도 1월 계획도입물량의 약 20%(30만톤), 50%(50만톤)가 각각 감축되었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는 이란으로부터 26만5천톤을 긴급 수입하였다. 동거래는 이란과의 石油 求償거래협약에 의한 것으로 향후 3년간 불가리아는 중장비기계를 수출하고, 이란은 1/2은 원유로, 1/2은 공산품으로 거래하기로 합의했다.

동독의 경우는 '90년 공급물량은 1,700만톤으로 전년도보다 260만톤이 감축되었다. 지리적으로 산유국과의 직접적인 협력관계를 맺기 어려운 동독은 최근의 統獨열기에 힘입어 서독과의 에너지협력을 통하여 해결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소련의 原油공급물량 감축은 동구제국으로 하여금 供給先의 다변화, 에너지源의 다원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동구제국은 산유국 특히 이란, 이라크 등 중동산유국과의 경제협력 형태를 통하여 공급력의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

헝가리는 이라크와의 경제협력을 맺어 '89년도에는 소련과의 계약물량에서 약 10만톤 부족분을 긴급 수입(21만톤)하였다. 체코의 경우도 이란과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원유의 부족분을 공급하고 있으며, 불가리아와도 이란과 求償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유고슬라비아는 이란산 天然가스 10억㎥를 향후 20년간 공급받기로 하였다. 루마니아는 현재 COMECON 제국중 소련으로부터의 원유공급을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나, 연간 560만톤(112,000B/D)의 이란산 원유와 10억㎥의 가스를 공급받기로 합의했다.

동구제국의 상황은 특히 에너지원에 있어서 가스도입을 확대케 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경제사회적 개혁의 분위기 속에서 石炭은 대기오염, 원자력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이러한 에너지원의 공급확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헝가리는 소련으로부터 原油의 공급은 감소되는 반면, 가스의 공급은 확대되고 있다. '90년 소련산 가스의 도입물량이 62.9억㎥로 확정되어 전년대비 3억5천5백만㎥ 증가되었다. 이것은 도입계획량보다 무려 7억㎥이나 많은 물량이다.

또한 유고슬라비아도 자국내의 석유증산에 역점을 두어 '90년도에는 석유 270만톤, 가스 21억㎥을 증산할 계획이다. 한편 알제리와 가스도입계약을 체결하여 6억㎥/년의 가스를, 1992년~2007년간 공급받기로 하였다. 특히 리비아와는 석유 가스 채굴계약, 石油化學團地 확장사업(약 9,400만달러) 참여등 에너지부문협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소련의 對東歐 석유수출 감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동구제국은 이같은 상황을 맞아 對蘇 에너지의존에서 탈피, 에너지공급선을 다변화하는 계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東歐諸國을 둘러싼 산유국간의 시장확보경쟁과 東歐諸國의 새로운 에너지정책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동향〉